



아세아 기생충예방 기구 발족과 한국의 사명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사무총장 李于馥

수년전 부터 일본기생충예방회 상무이사이며 사무국장인 구니이 쥬지로씨와 사담으로 이야기하여오던 기생충관리국제기구의 창설이 아세아지역만으로 국한되진 하였으나 구니이씨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4년 2월에 동경에서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한국, 중화민국(대만) 일본 3개국의 민간대표가 일본동경에 모여서 설립 예비회담을 가진 결과 1974년 10월 일본동경에서 아세아기생충예방기구 (가칭) AP-CO (The Asian Parantite Control Organization 의약칭) 창립총회와 결합하여 제 1회 창립총회를 갖기로 결의하고 이회의에는 INDON-ESIA. THAILAND. PHILIPPIN 등에도 관계자의 참석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74년 10월21일오전 9시30분 동경 AKASAKA Prince Hotel 에서 창립점 제 1회 아세아기생충예방기구 국제회의가 한국, 자유중국(대만), 인도네시아 태국등의 기생충민간관리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개막되었다. 이회의에는 민간기구를 가지지못한 국가에서는 관계공무원 또는 학자가 참석하였으며 필립핀은 추후 참석하였으며 대표이외에도 일본 각계 학자 공무원 기타 관계자가 많이 참석하므로 예상했던것보다 성대한 회의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전날인 20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가 사전 회의진행에 대한 예비회담을 가진바있었는데 이 예비회담에서 면밀한 계획이 짜지었고 또 일본기생충예방회측의 세심한 준비와 노력으로 10월 26일 회의가 끝날때까지 무사히 유쾌하게 성과있게 잘 진행되었다.

이회의에서는

첫째 아세아지역에서의 기생충예방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교류와 민간단체 상호간의 친선증진.

둘째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검사방법의 통일.

셋째 새로 기생충관리사업을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재의 공여.

네째 기생충구제약품의 개발과 보급.

다섯째 금후 매년 10월에 총회의 개최. 1975년에는 일본동경에서 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이 아세아기생충예방기구 구성원의 멤버이며 또 발의국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회원국중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기생충관리에 있어서는 선진국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세아기생충관리에 있어 후진국을 기술면에서의 지원이나, 관리요원과 기술요원의 교육훈련등에 적극참여함으로 국위선양은 물론 아세아 제국의 보건향상사업을 적극지원함으로 인류복지사업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할것이다. 다행히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전국적조직과 완벽한 검사시설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요원이 있으며 또 단시일내에 큰성과를 거둔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상 조건을 실효 활용하여 성의껏 후진국을 지원한다면 그들 국가도 우리와 같이 기생충의 피해로부터 전국민을 단시일내에 해방시킬 수 있을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전직원의 교양을 더욱 높임과 동시 기술의 연마에 의학의 숙련등을 기하여 언제라도 지원차 동남아 제국에 갈수있는 민간의 체제를 갖추어야 할것이며 또 외국에서 견학또는 연수차 방한하는 인사들을 맞아드릴 준비도하여야겠다. 또 이런일들은 기생충관리에 관여하는 학계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민에 알려져 국가간의 민간외교에 적극참여 함으로 한국의 위치를 더욱 국제무대에 부각시켜야 겠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이런사업의 일익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시키고자 우선 부산, 충남, 경기, 전남등 4개지부 검사소내에 외국인 이 숙박할수 있는 숙박시설을 완비하였으며 매개소마다 4명씩의 외국연수원들이 기거할수있는 시설을 완비하였다. 언제든지 외국연수원을 받아드릴 시설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또 한편 이런국제교류가 한두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국가간의 우의증진에 금이 가는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국제간의 교류는 어디까지나 상호평등한 입장에 이루어져야지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또는 언동등에 예의를 잇는다면 기생충관리면의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므로 우리는 이런면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항상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봉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장차 아세아지역에서의 기생충박멸사업의 봉사자가 될수있을 것이다.